

문화 이론과 정치경제학의 (재)접합을 위한 탐색 노트¹⁾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송동욱

1. 고민을 시작하며

“비판적 인문학자들은 너무 일찍 경제학을 포기하곤 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분석과 판단의 바탕이 되어야 할 비판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다. ... [반면에] 경제학적인 관점을 견지한 많은 이론적 접근들은 국면의 복잡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특정한 경제적 사건, 과정 그리고 전환을 이미 보장된 (국면 해석의) 열쇠로 파악하는 일종의 환원론으로 빠지곤 한다.”

-Grossberg, L.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studies’(2017)-

‘문화’와 ‘경제’ 혹은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간의 관계는 문화연구 내에 가장 첨예한 이론적 사안 중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연구학은 ‘문화’와 ‘유물론’의 결합과 함께 발흥했음에도 그 전개 속에서 ‘문화’와 ‘경제’ 사이의 관계가 항상 화목했던 것은 아니다. 필자가 속한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비판적 언론학 좌장 내에서 벌어진 스튜어트 홀과 골딩, 그리고 그로스버그와 간헐 간의 치열한 논쟁은 미디어 문화 연구과 정치경제학 사이의 견고한 벽을 상징하기도 한다.²⁾

1세대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수입된 문화연구 역시도 ‘경제’와 항상 친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부연하자면, 2000년대까지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의 이론적 관심사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인 ‘이데올로기’에서 푸코의 주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권력’, ‘욕망’, ‘미시적 일상’, ‘지식의 권력’을 경유하여, 들뢰즈의 ‘탈주의 욕망론’으로 흘러온 전력이 있다(원용진, 2005). 그러나 문화연구학을 포함한 비판적 사회학 내지 인문학 내에서 ‘경제’에서 ‘문화’로 그리고 다시 ‘문화’에서 ‘경제’로 반복해서 오가는 이론적 방점은 역사적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자의 추처럼 진동해왔다.

구체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추는 다시 ‘경제’ 쪽으로 기울었다. ‘자본주의를 잘 고쳐서 다시 쓸 것인가, 아예 판을 갈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세계를 배회했던 2008년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의 작은 균열을 보여주는 듯 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도 했으며, 잠시나마 주류 경제학을 위협한 ‘금융 위기’를 자본의 축척과 재생산 관점으로 해명한 바 있는 하비의 논의가 재조명받기도 했

-
- 1) 이 원고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다. 통상적인 논문의 선행연구의 선행연구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글은 사전 조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느슨한 형식을 띠고 있다.
 - 2) 류용재(2008)는 이후에 전개된 “조지아 대학의 셀레스테 콘디트와 텍스트 대학의 데이나 클라우드가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벌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적 전통에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콘디트의 저항과 실천이 가미된 콘코던스(concordance)란 개념을 내세운 절충주의적 입장과, 페미니스트 맑시스트로서 이에 대해 수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가하며 계급과 구조의 문제에 좀더 천착하기를 주문한 클라우드의 논쟁 등”(14쪽) 등의 논의들을 소개한 바 있다.

으며, 월스트리트에서는 상위 1%의 부유층을 겨냥한 대대적인 점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미디어) 문화연구를 처음 접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88만원세대를 비롯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지적하는 청년세대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지젝의 이론이 한국의 문화연구 진영을 포함한 인문사회학 안팎에서 크게 회자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자기계발하는 주체’에 대한 학문적 유행 이후,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 내부에서도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주체가 형성되는 면모를 분석/비판하는 연구들이 개진된 바 있다(한선, 2013; 이희은, 2014).

이에 따라 맨 앞에서 제시된 인용문이 예시하듯이,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한때 딱딱한 정치경제학과 선을 그었던 그로스버그를 비롯한 많은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인 과제로 재부상한 면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³⁾ 따라서 (문화)유물론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와 멀어졌던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의 이론적 관심사는 IMF 이후 점증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더불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와 대면하면서 다시 전환을 겪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어쩌면 자기자신을 부단히 변화시키며, 마치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 국면에서 “어떤 부분은 탈각시켜야 하고, 다른 부분은 목록에 추가해야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절합해야 하는 등 미디어 문화연구의 재조정”(원용진, 2007, 291쪽)이 다시 요청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순박한 경제결정론을 주장하거나, ‘계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변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적 사안들을 ‘경제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 중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파생되었다. 가령, 젠더 내지 난민 문제와 같은 최근 부상한 문화정치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쉽게 윤리성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집단의 반지성주의를 꾸짖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까? 왜 하필 그러한 적대의 전선이, 왜 하필 그렇게 그어졌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경제(적 조건)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 같은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필자의 눈에는) ‘문화’와 ‘경제’ 각각에 강조점을 두면서 정립된 ‘문화 이론’과 ‘정치경제학’의 (재)접합에 대한 탐색이 절실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글의 전개 순서를 미리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학계 내에서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간의 종합을 주제로 삼은 연구들을 선별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서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쟁점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본다. 다음 장에서는 미디어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사이의 갈등은 “주로 토대-상부구조 사이의 관계와 결정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220쪽)된다는 박홍원(2011)의 지적에 따라서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과 문화이론의 접합을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라는 다소 해묵은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보고자

3) “경제와 정동 간에는 항상 연관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다시 주요 영역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학자나 정치경제학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연구자로서 경제영역을 다루어야 하겠지요.”(이기형·조영한, 2015, 245-246쪽) 이와 더불어, 그로스버그(2006)는 문화연구자들에게 경제연구를 위한 짧은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바 있다. 첫째, 특정한 한 이론가의 경제학이 아닌 학제(discipline)로서 경제학에 접근할 것, 둘째, 경제적 삶, 관계, 담론의 구체적인 복잡성을 강조할 것, 셋째, 학제들을 가로지르는 공동 작업을 할 것, 넷째, 특정 학술지식 내지 지식 생산의 형식에 비성찰적인 특권을 부여하지 말 것.

한다.⁴⁾ 이를 위해서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 밖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는 학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발전된 이론적 궤적을 재조명한다.

아직 필자에게는 이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장을 개진할 역량이 없기에 이 원고는 향후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메모 내지 울퉁불퉁한 독서노트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글은 모든 문화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제하고 있는 ‘상부구조와 토대’ 혹은 ‘문화와 경제’의 관계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 대답들을 결집시키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통해서 심화된 논쟁과 토론을 소환하고자 한다.

2. 한국 학계에서 개진된 연구 사례 탐색

필자가 한국의 비판 언론학 내에서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드문지 않았다(류웅재, 2008, 2010; 문상현, 2009; 임영호, 1991; 조항제, 2008; 박홍원, 2011). 대표적으로 류웅재(2008)은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문화이론의 비판을 이미 수용하면서, 단순한 환원론 내지 결정론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미 발전해왔다는 점을 짚는 동시에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이 상호배타적인 이론적, 개념적 틀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 학계 내에서는 서구에서 벌어진 미디어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사이의 논쟁처럼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강조하는 치열한 전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만한 진영이 쇠퇴한 것과 연관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연구학은 항시적으로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패러다임 언론학 내부의 거의 유일한 생존자라 할 수 있다. 문화연구학 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자기성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연구의 비판 대상은 미디어 정치경제학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인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동과 연관이 크다. 임영호(1991)에 따르면, 비판적 언론학이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함에 따라 거시담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미시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성’과 ‘탈중심성’이 비판적 언론학 내부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인종(race)이나 성(gender)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들과 결코 배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근대성’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는 개념들은 점차 주변적인 것으로 강등 당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후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쇠퇴와 미디어 문화연구의 부상이라는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종합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미디어) (생산) 구조 내에서 발휘될 수 있는 피지배층 내지 수용자들의 저항성/능동성에 대한 문화연구의 이론적 강조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을 ‘(미디어)정치경제학’, ‘구조주의(문화연구)’, ‘문화주의(문화연구)’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박홍원(2011)은 ‘(미디어)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구조주의)’가 주제들을 순

4) “토대-상부구조 모델에 비교적 충실한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결정하는 요소로 소유구조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문화연구는 상부구조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형식과 실천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경제적 계급 관계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박홍원, 2011, 218쪽 참고)

박한 구조의 담지자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능동적이고, 저항적인 면모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특정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피지배층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선형적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이론들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면적 상황에 맞추어서 재배치되는 권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 개념이 향후 비판적 커뮤니케이션학에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약간 다른 결에서, 무분별한 문화주의를 견제하면서 스튜어트 홀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주의’ 대 ‘문화주의’라는 순박한 인식틀을 넘어서려는 다수의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구체적인 경험적 현실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문화연구의 성취를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조항제(2008)는 수용자의 소비 양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험적 현실을 파악할 수 방법론적 도구의 부재나 서구 이론의 비성찰적인 답습 등을 기존 정치경제학의 약점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의 쇠퇴를 이론 내부의 결핍에서 찾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미디어 수용자에 과도한 능동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에 정치적 역능 내지 차이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연구의 특정한 흐름⁵⁾을 경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서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주목하는 미디어 생산 조건에 대한 이론이 수용자의 능동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기한 ‘취향’과 미디어 수용의 다양한 ‘차이’들의 이면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자본의 지배 권력이 관철되는 장면을 탐문할 수 있는 해안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자인 문상현(2009) 역시 문화연구 진영이 미디어 정치경제학에 제시했던 비판점들 - “경제결정론과 환원론적 사고, 소비과정에 대한 무관심,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단순한 정식화,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계급에 대한 집착”(94쪽) -이 타당함을 인정한다. 더불어, 그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자인 모스코(Mosco)를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이미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이 문화연구 진영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 소비의 역동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계급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단순히 특정 부문을 망라한 비판적 언론학이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생산-유통-소비라는 자본주의 순환과정의 거시적”(100쪽)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힘과 요소들 즉 생산과 소비, 유통과 규제, 국가의 정책과 법제, 국제 정세, 문화산업의 현황과 변화, 시민사회의 운동 등등 꼼꼼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망”(류용재, 2008, 17쪽)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연구의 ‘문화의 회로(the circuit of culture)’ 모델과 같은 결을 공유한다. 동시에 문상현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정세’와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역동적으로 변화한 현실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5) 류용재(2008)는 능동적인 수용자 팬덤 연구로 예시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수용자 자신의 개별적 욕망의 총족이나 더 암울하게는 취향 전쟁, 선호, 구별 짓기 등의 한시적이며 개인적 층위에서의 해프닝에 그치고 마는, 해서 문화연구가 애초에 지향하던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정치성은 기껏해야 정체성의 정치나 몸의 정치의 미시적 일상성의 두꺼운 껍질 속으로 숨어들어가 그 안에서 송고한 부활을 기약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면하거나, 최소한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나 제도권 정치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상적 운동의 영역에 안주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15쪽) 필자는 이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선거가 스포츠 경기처럼 종종 재현되는 최근의 관찰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팬덤연구를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재구성하여,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화 현상과 그것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해명하는 연구 역시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으로서 그것의 발전 가능성을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기는커녕, 각각의 장점을 흡수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이론적 논의를 소묘하고자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편, 앞선 논의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기존의 미디어 문화연구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쇄신을 도모하는 문화연구 내부의 논의들 역시 소수 존재했다(이영주, 2006, 이영주·이병주·홍성일, 2008; 홍성일, 2010, 2011). 이러한 논의들은 여타 다른 미디어 정치경제학과 결합을 주장하기보다는 한때 문화연구의 젖줄이었던 ‘마르크스주의의 재장전’(홍성일, 2010)을 주문한다.

대표적으로 이영주(2006)는 미디어 문화연구 내부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론적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긴장을 소개하면서도,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아닌 사회비판이론으로서 ‘문화연구’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다시 ‘문화연구’를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연하자면, 여기에서 ‘문화연구’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지식인들이 그 당시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구조와 문화적 권위에 맞서 수행했던 이론적, 정치적 기획이었으며, 신좌파적 문화적 전회 과정에서 형성된 흐름”(184쪽)을 뜻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그는 문화연구의 강점인 ‘문화적 전회’(cultural turn)를 충분히 받아드리는 동시에 미디어 텍스트 내부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미디어의 소유와 통제, 텍스트의 생산과정에 대한 비판적 개입”(194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류용재(2010)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간의 공통분모 발굴을 시도한다. 특히 그는 “특정 담론이 유포되는 공간으로서 사회와 역사, 의미 구성, 담론전략(discursive strategy) 등 구조적 맥락”(40쪽)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는 담론 이론과 “세계관, 즉 구체적 맥락에서 특정한 양상으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자)적 조건과 사회적 총체성, 나아가 현상이면의 구조”(65쪽)를 분석하는 생산자 연구를 주요한 사례로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문화이론의 많은 부분이 정치경제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 연구와 수용자 연구, 거시와 미시, 구조와 개인, 제도와 행위자(혹은 실천), 자본과 노동 등을 상호배타적이거나 갈등하는 두 개의 힘으로 다루기보다 이러한 힘들이 작용/반작용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변증법적인 과정”(ibid, 68쪽)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과의 활발한 소통과 접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치경제학 진영은 ‘토대’의 강력한 힘만을 강조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는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식의 손쉬운 구분은 만료된 지 오래이며, 이미 둘 사이의 부단한 상호구성적인 조화의 흐름이 있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살핀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두 패러다임의 적절한 조화는 어느 국가나 지역의 문화와 문화장, 그리고 미디어 정경을 깊이와 넓이를 더해 긴 호흡으로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류용재, 2008, 19쪽)이 되어야한다는 전제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나아가 ‘문화’와 ‘경제’를 접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와 ‘추상적인 이론’,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성’과 ‘수동성’, ‘저항적 전략의 가능성’과 ‘복종의 메커니즘’, (미디어의) ‘소유 구조’와 ‘소비의 형태’ 등등의 각 쌍들 중 한 항에 고착하지 않고, 가로지르면서도 매개하는 새로운 종합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교훈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개별적인 주체의 “경험이나 체험을 소홀

6) 이러한 비판은 금융 위기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는 사회학 전공의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기도 했다(강내희, 2015; 서동진, 2011).

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식”(서동진, 2017, 103쪽)하는 문제로 인도한다. 특히 지금껏 이데올로기론에 이론적 관심사를 갖고 공부를 해왔던 필자에게는 다시 ‘구조’와 ‘주체’ 간의 복잡한 상호구성과정과 관련된 질문꾸러미로 이끈다. 이는 이상길(2004)의 말을 빌리자면, “이데올로기적 (혹은 권력에 의해, 혹은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와 이런 주체의 (이데올로기, 권력, 체계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은 어떻게 이론적 조화를 이룰까?”(101쪽)를 포함하며, ‘주체와 연루된 구조는 혹은 구조와 연루된 주체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구조 속에서 주체는 어떻게 구조를 체험하거나 인식하며,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가?’ 등등을 포괄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 이론가들이 대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필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거나 종합할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선 한국 학계 내 사례들의 연장선상에서 ‘토대-상부구조’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출한 바 있는 이론가들을 다시 훑어보고, 재독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문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종합했던 선구자 중 한 사람은 바로 레이몬드 윌리엄스였다.

3. ‘토대 - 상부구조’라는 오래된 질문과 솟아나는 대답들

영국에서 발상한 문화연구의 전통은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대답과 함께 시작되었다(Williams, 1973). 문화연구 개론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토대’가 ‘상부구조’를 기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무시무시한 ‘경제환원/결정론’을 기각한다는 점은 1차 세계대전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실패 이후에 탄생한 문화연구의 미덕이다. 부연하자면, 초창기 문화연구의 선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서 ‘문화’를 발굴하고자 했던 시도는 “혁명적 활력이 상실된 역사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천적 대안을 모색”(박거용, 1992, 136쪽)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공백이었던 “문학과 사회, 정치와 경제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문화의 특수성(cultural historical specificity)과 풍요로움(richness)”(이기형·조영한, 2015, 236쪽)을 메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내세운 이론의 이름이 단순히 ‘문화론’이 아니라 -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 ‘문화유물론’이라는 점이다. 부연하자면, ‘언어와 현실’, ‘주관과 객관’, ‘이성과 감정’, ‘관념론과 유물론’와 같은 대립된 쌍들의 상호배타적인 이분법을 끊임없이 휘저으면서, 사회(구성체)의 역동적인 구성 과정에 주목했던 윌리엄스는 미래를 점지하는 경제결정론을 폐지한다(강태완, 2000). 대신 그는 ‘결정’을 “한계를 설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자 “이미 존재하는 외부 세력에 어떤 내용이 예시되고 예측되고 통제되는 과정”(박홍원, 2011, 220쪽)으로 재개념화한다. 즉, 윌리엄스는 경제로부터 독립적인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과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고, 압박받는 문화의 타율성을 동시에 짚었던 셈이다.

한편, 문화연구자로 분류될 수 없지만, 윌리엄스와 유사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알튀세르를 들 수 있다. 각종 문화연구의 개론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그가 도식적인 경제주의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테제는 이후 문화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일방적인 결정론을 폐기하면서, 복잡하게 작동하는 다양한

모순들의 결정 원리를 지칭하는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⁷⁾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알튀세르(1970)가 상부구조의 자율성과 다양한 모순들의 복잡성을 이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가 토대 결정론을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슬며시 다시 들여오기도 했다는 점이다.⁸⁾ 이후 라클라우(2001/2012)와 같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를 ‘정치’ 혹은 ‘문화’와 같은 다른 영역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적인 논거를 마련한다. 그런데, 이것은 알튀세르의 이론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일까? 혹은 여전히 그가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부구조/상부구조의 관념을 독자적인 이론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한 문제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그 해결책은 항상 개인적이고 특수한 이해방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Jameson, 1990/2000, 127쪽)

여기서 제임슨은 ‘상부구조와 토대(하부구조)’라는 관계를 고정된 하나의 대답을 산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국면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새롭게 회귀하는 열린 질문으로 고정시킨다. 따라서 알튀세르의 대답 역시 단순한 논리적 오류가 아닌 종합해야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까? 이 글은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다시금 ‘토대-상부구조’ 논의를 재화성화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누구보다 이 질문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내리면서 문화연구를 변성시켰던 이는 바로 스튜어트 홀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절대적인 예측이라는 관점보다는 한계의 설정, 척도정하기, 작동 공간의 정의, 구체적인 존재 조건, 사회적 실천의 ‘기정 사실화’라는 관점에서 ‘결정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의 유일한 토대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론화의 열려진 지평 - 보증된 결론 없는 결정성 - 을 정착시킨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유물론’이란 것은 **최초의 심급에서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관념론에 대항해서, 어떤 사회적 실천이나 관계들도 그것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관계들의 결정적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분명히 옳기 때문이다.” (스튜어트 홀, 1983/1996, 59쪽)

7) ‘overdetermination’은 ‘중층결정’이라고 종종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백승욱(2017)은 “모순들이 여러 커로 쌓여 다원적인 원인을 형성한다는 ‘중층결정’의 이미지로 과잉결정을 사고하게 되며, 그 일반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곤란”(364쪽)하기 때문에, “모순의 조건들이 없으면 모순이 모순일 수 없으며, 모순은 그 조건들 없이 재생산될 수 없다”(365쪽)는 관점을 견지하여, 구체적인 모순의 조건들과 그 재생산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는 ‘과잉결정’이라는 용어 사용을 추천한다.

8) 반복적인 자기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알튀세르는 이 문제의식을 떠난 후기에 ‘마주침의 유물론’ 테제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자기비판에 따른 발전인지, 혹은 퇴행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사안이다. 가령, 강경덕(2014)은 “마주침의 유물론은 우연을 인식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사회 및 역사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역사를 인식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실천을 통한 대안적 경로 구성의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우연은 정세 속에서 대안적 운동과 실천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예시하고 기다리라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말해 주는 것이 없”(211-212쪽)고 비판한다. 이는 다시 우연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필연성이 관철되는 사회적 관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이론에 대한 질문으로 인도한다.

주지하다시피, 스튜어트 홀은 ‘정체성’을 항상 역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라클라우와 무페(2001/2012)의 담론 이론과 접합 개념을 적극 차용함으로써 상부구조의 자율성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활짝 개방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홀은 알튀세르의 ‘최종심급에서 경제결정’을 비틀어 ‘최초심급에서 경제결정’으로 전유함으로써 유물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앞선 윌리엄스의 대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교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는 특정한 실천들의 힘을 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한계의 설정, 척도정하기, 작동 공간의 정의, 구체적인 존재 조건, 사회적 실천의 ‘기정 사실화’”와 같은 방식으로 물질적인 힘이 작동한다고 말함으로써 순수한 관념론을 비껴간다. 이렇게 그는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라는 테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시금 마르크스주의를 유연하게 재구성/보존한다.

그러나 홍성일(2010)에 따르면, 홀은 80년 중반 이후 ‘계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채, 푸코와 라클라우의 이론을 깊게 수용함으로써 흔한 포스트구조주의자의 면모를 강하게 갖게 된다.⁹⁾ 그의 말대로, 만약 홀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홀의 이론적 실천을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 ‘미디어 문화연구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토대-상부구조’ 문제와 씨름했던 다른 두 명의 사상가들의 어깨 위로 올라 우회적으로 문제 풀이의 단초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만한 이론가는 알튀세르의 가장 충실한 -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 제자인 발리바르이다.¹⁰⁾ 스승으로부터 일찌감치 독립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바디우나 랑시에르같은 제자들과 달리, 발리바르는 알튀세르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쉐신을 꺾은 바가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 ‘토대-상부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눈여겨볼만하다.

먼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알튀세르와 결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내세웠던 계급중심성 내지 경제결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¹¹⁾ 구체적으로 그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정세적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서 ‘세계체체론’으로 유명한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공동작업을 하거나 ‘인권’과 ‘반폭력’과 같은 다소 근대의 정치철학에 속하는 주제에 천착해온 전력을 보이기도 한다(발리바르, 2007). 배세진(2017)에 따르면,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분류할 수 있는 후기 발리바르는 “현실적 보편성으로서의 세계화와 유럽연합의 건설,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린치로 드러나는 극단적 폭력의 만연이라는 정세”(306쪽)를 자신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9) 강내희(2015) 역시 문화연구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멀어지는데 기여한 이론으로 존 피스크와 라클라우의 이론을 지목한다. 그러나 라클라우를 단순히 ‘담론중심주의자’라고 손쉽게 규정할 수 없다. 가령, 서영표(2016)는 ‘비판적 실재론’을 참고하여 라클라우의 이론을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한 이론가의 글에서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켜 비판하기보다는 이론의 내재적 논리를 충분히 따져가며, 이들을 새로운 전유하는 시도가 이론적 발전에 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10) 실제로 알튀세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거나, 그의 서적을 번역하는 학자들을 -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서관모, 진태원, 최원, 백승욱, 정정훈, 배세진 등 -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알튀세르주의자들은 발리바르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경제중심성이나 계급중심성에 대한 자기 비판은 최근 한국에 번역되어 문화과학 93호에 실린 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내가 60년대 말에 그렇게 썼듯이 역사유물론이 하나의 과학이라고, 또는 계급투쟁이 그 자체로 역사의 물질성이 지니는 화해 불가능한 것의 심급을 구성한다고, 그리고 이에 따라 70년대에 내가 썼듯이 계급투쟁은 역사의 비가역적 변혁의 ‘동력’(moteur)이라고 쓰지 않을 것이다.”(발리바르, 1997/2018)

이와 더불어, ‘성적 차이’와 ‘지적 차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론적 논의에 도입함으로써, 지배 내 구조에 현존하는 여러 사회적 모순들과 과잉결정을 분석할 개념들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상부구조에 속하는 문제에 천착하는 포스트-마르크스의 면모를 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토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완전히 폐기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역사성의 보완물 또는 대체물로 기능하는 “상부구조”에 “토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서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동시에 분리불가능한 설명의 두 “토대들” 또는 두 결정들의 결합으로 기능하는 두 토대들, 즉 주체화/복종 양식(mode de sujétion)과 생산양식(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양식과 일반화된 경제 양식)을 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도식 말이다. 대립적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물질적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철학적 전통을 따라 상상적인 것(imaginaire)과 현실(réalité)이라는 이름을 다시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발리바르, 1997/2018, 362쪽)

‘경제’를 상부구조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한계 짓는 물질적인 힘을 파악했던 윌리엄스나 홀과는 다르게 발리바르는 ‘사회적 관계의 물질성’이라는 유물론적 테제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부구조와 토대’라는 두 쌍 대신 ‘토대-토대’라는 쌍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인 것)’와 연관이 있는 ‘주체화과정’ 내지 ‘이데올로기 양식’은 상부구조의 영역에 속하고, ‘경제(적인 것)’와 관련이 있는 ‘생산양식’과 ‘일반화된 경제 양식’은 ‘토대’에 속한다는 구분을 뒤집고, 이 개념들을 모두 물질적인 토대 영역으로 분류한다. 더불어, 최종심급으로서 경제결정론과 같은 하나의 원인인 ‘경제적 적대’(현실적인 것)가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상상적인 것)를 통해서 주체에 의식에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항은 항상 매개된 상태로 혹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형태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발리바르가 스승인 알튀세르가 헤겔의 흔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해고시켰던 ‘물신숭배론’을 적극적으로 재기용한다는 점이다(발리바르, 1995/2018). 이제 ‘물신숭배론’은 발리바르에게 ‘이데올로기론’¹²⁾과 같은 위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론은 국가에 내재된 지배 양식에 대한 이론이며, 물신숭배론은 주체와 대상의 모든 생산이 교환가치의 재생산에 복속되는 방식을 해명하는 시장에 대한 이론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발리바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호명과 화폐 권력에 따른 ‘주체화/복종 양식’을 구분한다.

그러나 그가 ‘상부구조-토대론’을 ‘두 토대론’으로 재구성하는 바는 인상 깊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 토대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홀의 대답에 비해서 (적어도 필자에게는) 명료한 대답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매개를 어떻게 물질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것인지, 실제 경험적 현실에서 정확히 이데올로기와 물신숭배의 작동을 어떻게 구분

12) 여기서 이데올로기론은 흔히 알려진 알튀세르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조시킨 발리바르(1993)의 이데올로기론이다. 부연하자면, 그에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층이 담지하는 이데올로기도, 지배적인 체제가 피지배층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그것은 “피지배자들의 상상의 특수한 보편화”(187쪽)로서, “보편화될 수 있는 상상적 경험은 지배자들의 체험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인정 또는 승인과 저항 또는 반역을 동시에 함축하는 피지배대중들의 체험된 경험”(서관모, 1991, 18쪽)이다. 따라서 발리바르는 이데올로기를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힘 관계의 결과물로서 파악함으로써, 이데올로기론으로 헤게모니론을 대체하거나 혹은 헤게모니론과 새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논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홀의 ‘구조주의’ 대 ‘문화주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남긴다.

하여 분석할 수 있을지, 그것이 항상 매개된 상태로 작동한다면 그것에 어떻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가 도입한 ‘성적 차이’와 ‘지적 차이’ 개념은 어떻게 두 토대론과 연결될 수 있을지 등등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요컨대, 이러한 두 토대론의 재구성이 과잉결정 분석에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방법론을 고안할 수 있을지는 향후 더 깊은 탐색 혹은 이론적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논할 수 있다.

한편 발리바르와 달리 ‘상부구조-토대’에 대해서 또 다른 답변을 제시하는 학자로는 제숍이 있다. 제숍은 알튀세르보다는 그의 동료인 폴란차스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쳐나간다. 구체적으로 그는 도구주의적 그리고 기능주의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관계로서 ‘국가’를 파악하는 이론인 ‘전략관계론’으로 유명하다. 부연하자면, ‘전략관계론’은 ‘구조’와 주체의 ‘전략’/‘행위’를 상호구성적인 관계로 파악하면서, 주체 혹은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싼 구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저항 혹은 대항함으로써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개념 역시 변한다.

“(Q: 전략적 선택성의 개념과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전자가 후자의 개념을 대체한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순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개념을 작동적 자율성(operational autonomy)과 물질적 상호의존(material interdep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작동적 자율성 개념은 행위의 여지를 남깁니다. 물질적 상호의존의 개념은 순전한 외부적 제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결합(structural coupling)과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서 작동적 자율성에 사후적인 [선험적이지 않은] 한계[제약]를 가합니다. ...”(전략관계론적 접근: 밥 제숍과의 인터뷰, 2006)

여기서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개념은 ‘작동적 자율성’으로 (토대의) ‘결정’ 개념은 느슨한 ‘물질적 상호 의존’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정치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답게 그는 행위자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상부구조’와 ‘토대’ 사이의 역동을 포착할 수 있는 중간 개념들 - ‘구조적 결합(structural coupling)’, ‘공진화(co-evolution)’, ‘경로의존성’, ‘경로형성’ 등등 - 에 주목한다. 구조와 국면을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행위자 전략이 필연적인 성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러한 관점은 앞선 주체의 능동성/수동성의 이분법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향후 (미디어) 문화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유효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제숍이 국가 중심의 전략관계론을 넘어서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을 접합하여, ‘문화정치경제학(cultural political economy)’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를 사숙한 지주형(2014)에 따르면, 문화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수용하면서도, 교조적인 정치경제학과 문화적 구성주의를 동시에 넘어서고자 하는 이론적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대상인 토지, 화폐, 노동 분업, 소비, 정보, 생산 등과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자율적인 경제의 영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복잡한 힘 관계에 의해서 형성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화유물론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더불어, 문화연구에서 빈번히 차용되는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구성했던 페어클라우(2004) 역시 이 연구 프로젝트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 패러다임은 문화적 전환 중에서도

언어전 전환을 깊게 수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의 과정을 철저하게 특정한 담론과 매개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특히 제도나 역사가 특정한 방식으로 유지, 변형, 소멸되는 과정을 담론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실 그 자체를 담론과 동일시하는 무분별한 문화적 구성주의를 경계하면서, 라클라우의 담론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담론은 “자동적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물질적 조건 아래 사회적 실천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통합”(Ji, 2013, 34-35쪽)이 되었을 때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론이 현실화되는 영역 역시 물질적 조건 내부라는 관점은 물질적 조건에 대한 우위를 강조한 발리바르의 두 토대론의 논의와 묘하게 공명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 두 이론가들은 ‘상부구조’-‘토대’ 관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과정에 대한 강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이론가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적 렌즈를 겹치면,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 있다. 가령, 발리바르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의 매개적 과정은 제습이 제시하는 ‘기호적인(semiotic) 메커니즘’과 ‘탈기호적인(extra-semiotic) 메커니즘’의 매개적 과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모두 강조하는 ‘구조’와 ‘국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에게서 ‘모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까? 등등.

나아가서, 두 이론은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리바르는 제습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현실을 포착할만한 정교한 개념들이 없다. 그러나 발리바르는 이데올로기론을 발전시켰으로써 제습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체화 양식 이론을 정교화시키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물신숭배론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으며, ‘지적 차이’와 ‘성적 차이’라는 주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이론 내에 기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상부구조-토대’라는 같은 질문에서 파생되어 각기 다르게 분기한 이 두 이론이 종합/통약 가능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공유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문화연구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은 여전히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의 접합을 시도하려는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폈다. 특히 한국 언론학 내에서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접합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들과 ‘토대-상부구조’라는 질문을 쇠신했던 이론가들의 논의를 훑아보았다. 연구를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본 원고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는 단계에 가깝다. 수많은 연구자의 이름이 등장

13) 이 원고의 초기기획단계에서는 발리바르, 제습과 더불어 제임슨을 함께 상호 대조하며 논의하고자 했으나,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충분히 개진되지 못했다. 부연하자면, 제임슨은 알튀세르의 ‘구조적 인과성’ 개념으로 문학 이론을 세공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아도르노’라는 다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간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관심사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개념들과 사유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상부구조’와 ‘토대’ 대신 ‘보편’과 ‘개별’이라는 전통적인 독일철학 개념을 다시 꺼내 든다. 여기서 충분히 논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국면을 분석함에 있어서, ‘후기자본주의’라는 말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아무리 새로워 보이는 국면이라도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연속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임슨과 그와 달리, 새롭게 구성되는 현실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부단히 개념적 틀을 생산하는 제습 사이의 관점 차이 역시 깊이 고민해볼만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 학계 내에서 문화연구를 쇠신하는 연구를 개진한 바 있는 서동진(2011)과 주은우(2013)은 각각 제임슨과 제습의 논의를 핵심적으로 차용한다..

했음에도 이들의 이론의 내부적인 논리를 정교하게 들여다보거나, 이론적 논쟁의 기나긴 변천사 내지 이론(가)들 사이의 치열한 긴장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당연히 우리에게 펼쳐진 경험적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도 심도 있게 전개하지 못했다.

고백건대, 이 글은 필자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으로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그에게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한 점들을 풀어쓴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개진한 기존 연구에서 빠쪽 빠져나온 터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사가 다소 강하게 투사된 이 탐색 경로는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의 (재)접합을 향한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가령, 서구에서 전개된 미디어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의와 그것이 미디어 문화연구와 어떤 식으로 교류해왔는지에 대한 보다 첨예한 최신 쟁점을 통해서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정직하고 유효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 원고를 매개로 ‘토대-상부구조’에 대해 다른 문화 혹은 미디어 연구자들이 각자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에서 서로 만나고, 또 어디에서 멀어지는지, 만약 이 길을 걸을 필요성이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해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는 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의 접합을 시도하면서, 경험적 현실을 분석하고자 했던 미디어 문화연구 내부의 비교적 최근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반대로 그것에 의해서 구성되기도하는 ‘경제적인 것’을 포착하고자 조영한(2012)의 작업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이 글의 시작에 잠깐 등장했지만,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그로스버그의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분석에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저자는 “사회에서 특정한 모순들과 흐름들이 겹치어 발생하여 구조적인 변동이 발생한 상황”(ibid, 30쪽)인 ‘국면’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파악한다. 특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그가 경제 영역과 비경제 영역이 깊숙이 매개되어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경제 경계 허물기’, ‘과정으로서의 경제’, 그리고 ‘담론으로서의 경제 읽기’라는 세 가지 분석점들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지점이다.

두 번째는 이미 문화과학이 92호 특집으로 다룬 바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인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다. ‘플랫폼’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자본 가치 축적 전략을 구성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미디어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가 공동으로 다뤄야할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김상민(2017)은 플랫폼 자본주의를 2008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조직 형태, 새로운 직업 유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착취 방식을 모두 취합하면서 자본주의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내놓는 새로운 자본축적의 방식”(127쪽)이라고 논한 바 있으며, 이광석(2017)은 “앞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개인이나 그룹을 다면적으로 상호 중개해 이들의 성취욕을 후견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플랫폼 이용자 활동과 물질·비물질 자원을 흡수해 특정의 정교한 데이터 알고리즘 작업을 거쳐 이를 자본가치화하는 이른바 신종 ‘거간꾼’ 시장 모델”(23쪽)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경험적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 대상에 대한 간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이 더욱 긴밀하게 교통하길 희구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경덕 (2014). <구조와 모순 -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논점들>. 서광사.
- 강내희 (2015). 일상의 문제와 문화연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 12-44.
- 강태완 (2000).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문화사회학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연구 15. 1-19.
- 김상민 (2017). 플랫폼 위에 놓인 자본주의 이후의 삶. 문화과학, 92, 120-145.
- 류용재 (2008). 한국 문화연구의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언론과사회, 16(4), 2-27.
- 류용재 (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 사회, 18(4), 37-73.
- 문상현 (2009).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학문적 지형과 이론적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77-110.
- 박거용 (1992). 문화이론/지배문화 분석의 한 모델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유물론. 문화과학, 1, 135-152.
- 박흥원 (2011).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본 접근들. 언론과학연구, 11(2), 215-246.
- 배세진 (2017). 발리바르의 ‘스피노자-맑스주의를 위한 열한 가지 테제들’ 해제. 문화과학, 92, 300-331.
- 백승욱 (2017). <생각하는 마르크스>. 서울: 북콤마.
- 서관모 (1991).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5-20.
- 서동진 (2011). 심미적인, 너무나 심미적인 자본주의. 경제와사회, 10-41.
- 서동진 (2017). 증오, 폭력, 고발 : 반지성주의적 지성의 시대. 황해문화, 87-103.
- 서영표 (2016). 라클라우가 ‘말한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재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3권 1호, 130-165.
- 스튜어트 홀(1996/2010).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 에티엔 발리바르 (1989). 역사변증법에 대하여, ‘역사유물론 연구’, 이해민 옮김, 푸른미디어.
- 에티엔 발리바르 (2007). <문화대혁명: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살림.
- 에티엔 발리바르 (2018). <마르크스의 철학>, 배세진 옮김, 오월의 봄.
- 에티엔 발리바르 (2018). 무한한 모순. 배세진 옮김, 문화과학, 93, 354-369.
- 원용진 (2007). 미디어 문화연구의 진보적 재조정. 문화과학, 51, 289-305.
- 이광석 (2017). 자본주의 종착역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소묘. 문화과학, 92, 18-47.
- 이기형, 조영한 (2015). 미래시제로서 문화연구 : 맥락, 국면, 주체성의 정치학 - 로렌스 그로스버그 교수와의 인터뷰. 문화과학, 82, 222-248.
- 이상길 (2004).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한국언론학보, 48(5), 79-109.
- 이영주 (2006). 미디어 문화연구의 자기 성찰 : 신좌파 비판이론으로서 문화연구의 조망. 문화과학, 48, 175-195.
- 이영주·이병주·홍성일 (2008). 현존하는 적대, 부재하는 이론 : 미디어문화연구의 비판적 성찰.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61-77.
-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한국언론정보학보, 211-241.
- 임영호 (2001). 한국 언론학에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문제설정. 한국방송학보, 15(2), 343-379.
- 장세룡 (2014). 신문화사의 공간과 문화의 정치경제학, 역사와 문화, 27호, 109-141.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22-64.
- 조항제 (2008).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언론정보학보, 7-46.
- 주은우 (2013). 문화(정치)경제학과 현대 자본주의 비판. 경제와사회, 184-211.
- 진태원 (2018). 에티엔 발리바르는 마르크스주의자인가?: 하나의 과잉결정에서 다른 과잉결정으로, <마르크스의 철학> 해제, 6-24.
- 최종렬 (2003). 포스트모던 미국사회학의 문화연구. 한국사회학, 37(1), 201-229.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 (becoming)의 통치술. 한국언론학보, 57(3), 431-454.
- 홍성일 (2010). 오늘, 우리의 문화연구 - 급진적 문화연구 '하기'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정보학회 <작은 토론회> 4 발표문.
- 홍성일 (2011). 문화연구에서 문화의 위치, 알튀세르적 입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Althusser, L. & Balibar, E.(1970). 「Reading Capital」. London : New Left Books.
- Balibar, E. (1993). The Non-contemporaneity of Althusser. 윤소영 (역)(1993) ‘비동시대성’,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183-84.
- Fairclough, Norman, Bob Jessop, and Andrew Sayer. (2004). Critical Realism and Semiosis.”Alethia 5, No. 1, 2-10.
- Grossberg, L. (2017).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studies: a response to Bryan and Rafferty, Journal of Cultural Economy, 10:4, 356-363.
- Grossberg, L. (2006). Does cultural studies have futures? Should it?(or what’s the matter with New York?): Cultural studies, contexts and conjunctures. Cultural Studies, 20(1), 1 ~ 32.
- Jameson, F. (1990). Late Marxism :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 Verso. 김유동 (역) (2000). <후기 마르크스주의>. 서울: 한길사.
- Jessop, B., & Oosterlyck, S.(2008). Cultural political economy: On making the cultural turn without falling into soft economic sociology. Geoforum, 39, 1155 ~ 1169.
- Joo-Hyoung Ji (2013). The Neoliberalization of South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한국정치학회보, 47(3), 33-58.
- Laclau, E & Mouffe, C.(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이승원 역(2012).『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서울 : 후마니타스.
- Williams, R. (1973). Base and superstructure in Marxist cultural theory. New Left Review, 82, 3-16.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다른 자료>

전략관계론적 접근: 밥 제소프와의 인터뷰

<http://bobjessop.org/2014/12/02/the-strategic-relational-approach-an-interview-with-bob-jessop/>

4, 5부 지주형 번역(<http://moraz.egloos.com/4057984>)